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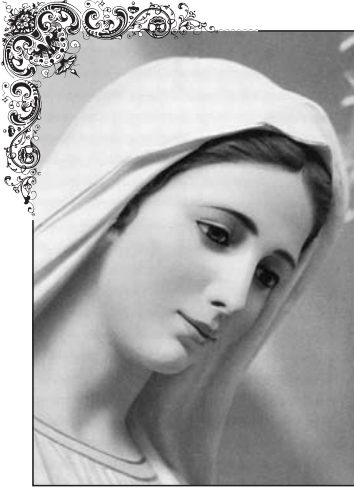
MEDUGORJE
2010.
Moljarski
likovni krug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Queen of Peace Missionaries

2010, April / 제55호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너희가 힘차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너희를 어렵게 만드는 순간에도 힘을 내라고 너희 모두를 간절히 부른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희 소명을 기쁘고 겸손하게 살며 모든 이에게 증거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모두를 내 아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너희를 떠받쳐주실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0년 3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바티칸에서 발표한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지 조사위원회 명단

2010년 3월 17일 바티칸의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에 대한 국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신앙교리성 산하의 이 조사위원회는 까밀로 루이니 추기경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추기경, 주교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1981년 6월 24일 첫 발현 이후 29년이 지난 지금도 성모님 발현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성직자들을 포함한 약 4천만 이상의 순례자들이 메주고리를 다녀갔다.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메주고리에는 현대 영성의 중심지"라고 말씀하셨고, 현 교황 베네딕토 19세께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말로 메주고리를 평하셨다.

1. 조사 위원장 까밀로 루이니 추기경 - 전 로마 교구 교황 총대리,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최고 자문위원
2. 조제프 톰코 추기경 - 슬로바키아, 교황청 국제 성체 대회 명예위원장, 전 인류복음화성 장관
3. 훌리안 헤란즈 카사도 추기경 - 스페인, 교황청 교회법 해석 평의회 명예위원장
4. 요십 보자니치 추기경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대교구장
5. 빙고 풀리치추기경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브르보스나 (사라예보) 대교구장
6. 안젤로 아마토 대주교 - 이탈리아, 교황청 시성성 장관
7. 데이빗 마리아 재거 신부 - 이스라엘, 프란치스코회 사제, 교회법 전문가,
8. 살바토레 페렐라 신부 - 이탈리아, 마리아회 사제, 교황청 산하 대학 마리아론 강사

9. 삐에란젤로 세쿠에리 신부 - 이탈리아, 신학자, 국제 신학 위원회 위원
10. 즈지슬라브 요세프 키야스 신부 - 폴란드, 프란치스코회 사제, 교황청 산하 무염시태 마리아 대학 총장
11. 토니 마나크렐라 몬시뇰 - 프랑스, 심리학자, 마리아론 전문가, 교황청 가정평의회 및 보건사목 평의회 자문위원
12. 프란요 토피치 몬시뇰 - 크로아티아, 사라예보 소재 크로아티아 문화 단체 "프로그레스" 회장
13. 미요 니키치 신부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예수회 총장, 종교 심리학 교수
14. 넬라 베로니카 가스파르수녀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신학자
15. 야킴 솔츠 - 독일, 종교 현상 전문가
16. 크르치토프트 니키엘 몬시뇰 - 폴란드, 전 교황청 보건 사목 평의회 위원.
17. 미할리 스펜트마르토니 신부 - 세르비아, 예수회 사제,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영성 연구소 소장, 임상 정신의학 교수, 전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 메주고리에 조사위원회 산하 의학 분과위원으로 6명의 메주고리에 목격증인들을 검진하였으며 그들이 정상임을 입증함.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봉헌합니다.
- 방향을 찾지 못하는 현실의 갈등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 양가부모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봉헌드립니다.
- 예수님, 가게를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가족들이 건강하고 주님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 주님께 온전히 위탁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 오빠가 아들과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도록 기도해주세요.
- 세아들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제되도록 봉헌합니다.
- 메주고리에 발현 조사위원회를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예수님, 성령이 임하시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득히 주소서.
- 저의 노부부의 건강 보살펴 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 성모님, 죄없이 낙태로 희생된 요셉과 요한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길 빌어주소서.
- 온 세상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 사랑이신 주님, 저희 가정을 봉헌하며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 아들란타 조지아 꽃동네 김마리아 원장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올랜도 성당의 평화의 모후 레지오단원들과 가족들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 알코올중독으로 고통받는 동생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 유방암 절제 수술후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노모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화를 간구하며 보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 성모님, 암과 투병중인 시어머님을 보살펴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 장인의 원인모를 질병과 치매가 치유될 수 있도록 성모님께 위탁합니다.
- 성모님, 뇌수술 받은 남편이 하루 속히 쾌유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어 기쁨과 평화롭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 저의 내외의 남은 생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도록 보살펴주세요.
- 성모님, 한국에 있는 동생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예수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봉헌하오니 참된 평화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 파킨슨병과 전립선암으로 투병하는○○○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가족들이 영적인 시련을 잘 견디고 악에서 해방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 영주권이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청하며 항상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주님의 선하신 뜻이 미카엘과 마리아 가정에 이루어 지시길 두 손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몇개월마다 한번 토하기 시작하면 2~3일을 계속 토하는 ○○의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예수님 성모님, 장베네딕트에게 안식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소서!
- 온 가족이 사순절때 주님의 자비로 변화되어 묵주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세요.
- 예수님, 첫 손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그 가정에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 ○○○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성체 성혈을 받아 모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 성모님, 지진으로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봉헌합니다.
- 진도미니카의 조상님들과 양가 부모님들의 영혼과 연옥에 있는 가장 불쌍한 영혼을 봉헌합니다

-
- 3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성체성사는 가장 거룩한 성사입니다.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제 3 장 성체성사와 교회의 사도 전래성

26. 앞서 말했듯이, 성체성사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성체성사를 이루는 만큼, 교회와 성체성사의 관계는 너무도 심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라는 신앙 고백을 성체성사의 신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도 하나이고, 보편되며 거룩합니다. 실제로 성체성사는 가장 거룩한 성사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체성사가 지닌 사도 전래성을 고찰하여야 합니다.

27.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도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사도적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말의 세 가지 의미를 보여 줍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시고 선교에 파견하신 증인들인 '사도들의 기초'(에페 2,20)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체성사도 사도들에게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께 기원을 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내려 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실천한 바를 이어 받아, 예부터 줄곧 성찬례를 거행해 왔습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지적하듯이, "교회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유산, 사도들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보존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체성사도 사도들의 신앙에 따라 거행되기 때문에 사도적입니다. 새 계약의 백성이 걸어온 이천 년 역사의 다양한 시기에, 교회의 교도권은 성체성사에 관한 적합한 용어를 포함하여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 정확하게 정의해 왔습니다. 이는 바로 성체성사의 위대한 신비 안에서 사도적 신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으며, 이러한 불변성은 교회에 본질적인 것입니다.

28.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그

사제의 성실함은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를 보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주저 없이 응답하려는 동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들의 사목직을 이어받아 그들을 계승한 사람들, 곧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회의 최고 목자와 하나 되어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이 명령을 수행하는' 주교단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지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의 사목직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물론 성품성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유효한 주교품을 처음부터 중단 없이 이어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계승은 적절하고 완전한 의미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찬례도 이러한 사도 전래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듯이,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 하지만, "참으로 그가 지닌 거룩한 힘으로 사제다운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며, 성찬의 희생 제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거행하고, 온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은 성품 사제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로마 미사 전례서」는 사제만이 감사기도를 드려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 신자들은 신앙 안에서 말없이 동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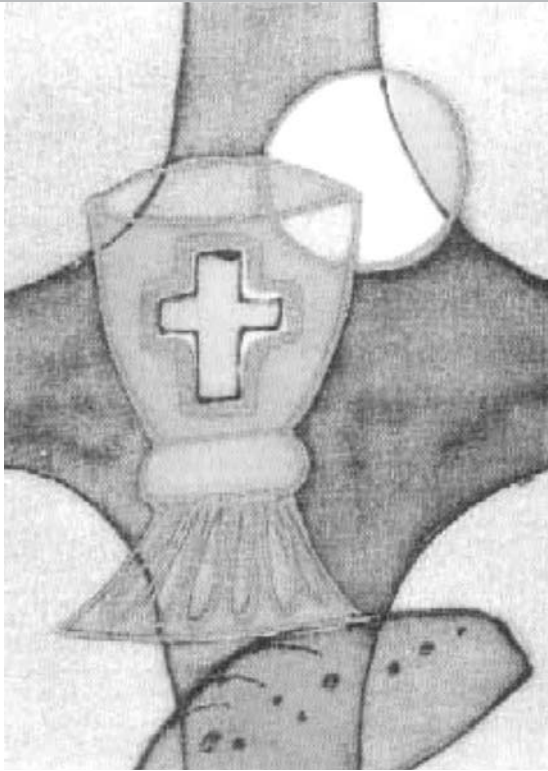
29.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반복하여 사용하는, "직무 사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한다."는 표현은 교황의 가르침 속에 이미 굳게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기회에 지적하였듯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in persona Christi)'라는 문구는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봉헌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신하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희생 제사의 창시자이시며 근본 주체이신 영원하신 대사제와 성사를 통하여 특별하게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들의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구원 경륜 안에서, 그들이 거행하는 성찬례가 회중의 힘을 근본적으로 초월하는 은총이며, 모든 경우에 성찬 축성문을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최후 만찬에 유효하게 연결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 줍니다. 성찬 거행을 위하여 모인 신자들의 모임이 진정한 성찬 모임이 되려면, 그 모임을 주재하는 성품 사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공동체는 스스로 성품 사제를 낼 수 없습니다. 교역자는 신자들이 사도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주교직의 계승으로써 얻는 선물입니다. 성품성

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제를 만들고 그에게 성찬례를 봉헌할 권한을 주는 사람은 주교입니다. 따라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명백히 가르치듯이, 성품 사제 외에는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성찬례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30. 사제 직무와 성찬례의 관계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성찬의 희생 제사에 관한 가르침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교회 일치 영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대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복되신 삼위일체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젠가 신앙을 충만히 나눌 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서양에서 생겨나 현재는 가톨릭 교회와 갈라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 대해서는 공의회와 견해가 지금도 매우 적절합니다. "우리와 갈라진 교회 공동체들은, 비록 세례에서 흘러 나오는 완전한 일치를 우리와 함께 이루지 못하고 또 특히 성품성사의 결여로 성찬 신비 본연의 완전한 실체를 보존하지 못하였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래도 그들은 거룩한 만찬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이 만찬이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는 삶을 상징한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이들 갈라진 형제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만, 성찬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묵과함으로써 진리를 명백히 증언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예식에서 나누어 주는 친교의 빵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눈에 보이는 완전한 일치를 향한 진전이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말한 교회 공동체들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초교파적 말씀 전례나 공동 기도 예식, 나아가 그들 공동체의 전례 예식 참여로 주일 미사를 대신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전례나 예식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성찬의 친교를 포함하여 완전한 친교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아무리 훌륭하게 이바지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성찬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례를 봉헌할 권한이 오직 주교들과 신부들에게만 맡겨져 왔다고 해서 나머지 하느님 백성의 지위가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의 친교를 통하여 이러한 은총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31. 성찬례가 교회 생활의 중심이며 정점이라면, 그것은 또한 사제 직무의 중심이며 정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저는 성찬례가 "성체성사 제정 때에 유효하게 생겨난 성품 성사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존재 이유"라고 되풀이하여 말합니다. 사제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목 활동에 참여합니다. 현대 세계의 사회 문화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제들이 그러한 수많은 다양한 임무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릴 지극히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목자다운 사랑에서, 사제의 생활과 활동을 통합시켜 주는 끈을 보았습니다. 이 목자다운 사랑은 "주

로 성찬의 희생 제사에서 흘러 나오며, 따라서 성찬례는 모든 사제 생활의 중심이며 근원"이라고 공의회는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제들이 날마다 성찬례를 거행하라는 공의회 권고를 따르는 것이, 사제의 영성 생활과 교회와 세계의 선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신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회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제들은 중심을 잃게 하는 일상의 긴장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제 생활과 교역의 참된 중심인 성찬의 희생 제사 안에서, 다양한 사목 직무를 다룰 때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일상 활동은 진정한 성찬례가 될 것입니다. 사제 생활과 교역에서 성찬례가 차지하는 중심 자리는, 사제 성소를 사목적으로 장려할 때 성찬례가 중심이 되는 토대입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는 성찬례에서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기도와 가장 밀접하게 결합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 교역을 수행하는 사제들의 성실함은 신자들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이며 충실한 성찬례 참여와 함께,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본모습을 보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주저 없이 응답하려는 동기를 불어 넣어 줍니다. 주님께서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사제 성소의



**교회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얻고 자라납니다.**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 고자, 흔히 사제의 열렬한 목자다운 사랑의 모범을 이용하십니다.

32. 이 모든 것은 충분한 구성원과 다양한 신자들이 본당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이끌 사제가 없다면 그 공동체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정상적일지를 보여 줍니다. 본당은 무엇보다도 성찬의 희생 제사의 거행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세례 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사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제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례를 거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사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일을

거행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기도로 이끄는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세례성사의 은총을 바탕으로 모든 신자의 보편 사제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은 공동체가 사제를 기다리는 동안의 잠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전례 거행의 성사적 불완전성은, 무엇보다도 모든 공동체가 주님께서 당신의 추수 밭에서 일할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마태 9,38 참조)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사제직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교육적 기준을 낮추어 해결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적절한 성소 사목 증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결집시키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33. 사제가 부족하여 비수품자들에게 본당 사목의 몫이 맡겨졌을 때, 비수품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찬례 거행에 그 기초와 중심을 두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동체 안에 성찬례에 대한 참된 '갈망'이 살아 있게 함으로써, 미사 거행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교회법적으로 미사 거행에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장애가 없는 사제가 가끔씩 찾아오는 기회를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장 성체성사와 교회 친교

34.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1985년 임시 총회는 '친교의 교회론'의 개념이야말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사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지상 순례 동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 또 신자들 간의 친교를 유지하고 증진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말씀과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얻고 자라나며," 성체성사 안에서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친교라는 말이 이 지고한 성사에 주어진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외아드님과 일치됨으로써, 우리가 성부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완성시켜 주므로 모든 성사의 정점으로 여겨집니다. 비잔틴 전통의 한 저명한 작가는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이러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성사와 달리, 성체의 신비는 참으로 완벽해서 우리를 모든 선의 정점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의 바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이르고, 하느님께서 가장 완벽한 결

합으로 우리와 일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마음 안에 성체성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신령성체'의 관행은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신령성체는 다행히도 교회 안에 수세기 동안 자리잡아 왔으며, 영성 생활의 스승인 성인들이 권장해 온 것입니다. 예수의 테레사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미사에도 참례할 수 없을 때에는, 신령성체를 하십시오. 이는 지극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35. 그러나 성찬례 거행이 친교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성찬례 거행은 이미 존재하는 친교를 전제로 하며, 친교를 공고히 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활동으로써 우리를 성부 하느님과 또 우리 서로와 결합시켜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사들과 교회의 위계 질서를 통하여 친교를 낳는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친교의 유대를 표현합니다. 교회 친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과 눈에 보이는 요소들 사이의 심오한 관계가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만 합법적인 성찬례 거행과 진정한 성찬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례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찬례가 친교 안에서 거행되고, 특히 그러한 친교의 다양한 유대를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M**

(위의 기사는 성체성사의 은총과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신앙 생활을 위해, 2003년4월 7일 발표된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의 문헌인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는, 역대 교황님들의 주옥같은 문헌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연재합니다. -편집실 주-)





교황청이 메주고리에 성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다.



바티칸 시티, 2010년 3월 17일 수요일 교황청은 메주고리에 "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 구성을 확인해 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티칸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신

앙교리성의 산하에, 까밀로 루이니 추기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메주고리에 국제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추기경, 주교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신앙교리성으로 넘길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현재까지 루이니 추기경이 위원장으로 일할 것이라는 것 외에 다른 소식은 없지만,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주고리에 속해 있는 모스타르 교구장 라트코 페리치 주교가 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롬바르디 신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대답했다.

교황청 대변인은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 조사가 교구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나간 조사 과정을 되짚었고, "발현 현상이 교구 차원보다 더 확대되었다"

고 여겨졌을 때, 조사권한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옛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로 이관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교회의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발현이 초자연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들이 신앙교리성에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교황청 대변인은 설명했다. 롬바르디 신부는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소득을 올렸는지 정보를 교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지만, 사안이 민감한 것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태리말로 위원회가 조사를 마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상위기관인 신앙교리성에 넘겨질 것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다만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신앙교리성에 제출하고, 신앙교리성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롬바르디 신부는 이제, 위원회의 구성이 "객관적"이기에, 위원회가 취하는 조사방식도 그러할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M**

(다음은 2010년 3월 17일자 www.catholicnewsagency.com에서 발췌 번역한 기사입니다 - 편집자주)

메주고리에 국제 조사 위원회에 관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교황대사 성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교황대사 알렉산드로 데리코 대주교는 제48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를 마치면서 2010년 3월 18일 메주고리에에 관해 성명을 발표했다. 메주고리에

미르 라디오를 통해 중계된 성명서에서 교황대사는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교황님을 뵈을 때마다, 교황님께서 항상 메주고리에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신앙교리성 장관 시절부터 메주고리에 관한 모든 것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메주고리에가 특별히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계시고, 교회 최고위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메주고리에 현상에 대해 대단히 잘 알고 계시며, 심지어 저에게까지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은 메주고리에 사제들, 수도자들, 프란치스코 회원들, 평신도들이 끼치고 있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황님께는 메주고리에 현상을 반대하는 정보가 것처럼 많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황님께서 가장 높은 차원의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능력과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큰 그림을 얻고자 이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세계 각 지역의 추기경, 주교 그리고 전문가들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신 것입니다. 3월 17일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공식 발표된 루이니 추기경은 아주 능력있고, 대단히 명망이 높은 분이며 교황님과 측근이기도 합니다. 루이니 추기경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본인이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던 때, 전쟁 중에 있었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추기경은 이탈리아 교회와 주교회의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람들이 받은 모든 상처 치유를 돕는데 관여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메주고리에가 모스타르 교구 관할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이 위원회 발족에 대한 소식을 교황청과 모스타르에서 동시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하심으로써 이 나라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큰 연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언론에서 이 위원회에 관해 아주 많이 언급하고, 따라서 많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스타르와 전 가톨릭 교회를 향해 보여주신 교황님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월 17일 로마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성명이 발표될 때, 제가 교황님을 대신하여 이곳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방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모스타르의 주보성인이신 성 요셉과 마리아님께 이 위원회의 활동을 봉헌하도록 초대합니다. **M**

(<http://www.medjugorje.hr>에서 발췌 및 번역)





너희에게 주는 선물

284. 84. 1.28. 산 마르코(우디네,이탈리아).
성 토마스 데 아퀴노 기념일

우 아름다운 자수를 놓듯이, 너희 하루의 모든 일을 짜임새있게 배열하고 모든 상황을 조화롭게 안배해 주는 것으로 표현되는 선물이다. 너희가 함께 있는 것,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인 '거룩한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 너희의 나약과 인성의 비참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티없는 내 성심의 선물이다. 형제들이 모여 있듯이 손에 손잡고 언제나 일치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도 고통도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에게 이미 알려 주었거니와, 내 계획은 극히 완전한 일치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티없는 내 성심이 주는 선물 --- 오! 그렇다, 더없이 특별한 선물이다! --- 은 바로 내 메시지들을 담은 이 책이다.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나의 이 책에 이미 다 나와 있다. 입을 줄만 안다면 이 안에서 내 계획 전체, 즉 그 실현을 위한 준비, 고통이 요구되는 구체적 실행, 찬란한 승리를 안겨줄 그 완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생활로 실천하여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말을 통해 내가 현존하며,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엄마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는 훗날 가서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티없는 내 성심이 주는 또

(...) 너희의 삶은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와 이 천상 엄마의 뜻에 의해 안배되어 있다. 이를테면 고통의 순간들, 영적 시련과 내적 어려움의 순간들, 기쁨과 위로의 순간들, 그리고 나에게 대한 열심과 일치 순간들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일체가 너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예수께서 너희 천상 엄마의 티없는 성심을 통해 주시기에, 내가 주는 선물이 되기도 한다.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내 마음의 문이 열려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엄마의 충애를 쏟아 부어 주니, 이렇듯 엄마다운 자상한 애정, 티없는 내 성심의 충만한 사랑의 열림이야말로 너희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엄마의 임무는 자녀들을 위해, 다시 말해서 만민을 위해, 날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가장 멀리 떠나있는 이들에게는 자비와 용서의 선물, 죄인들에게는 착한 길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부름의 선물,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연민과 위로의 선물, 임종자들에게는 이 세상 삶을 착하게 마치고 그들을 기다리는 생명의 황금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게 하는 도움의 선물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에게는 지극히 특별한 충애를 선물한다. 이는 너희 천상 엄마의 손길이 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의 선물은 너희에게 알려준 나의 계획이다. 말할 때 나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지상 생활에서 얻게 된 체험으로 하는 너희의 말과는 달리, 나로서는 '천국의 빛'을 통해 말한다. 내 아들 예수 성심 안에, 그리고 지존하신 성삼의 현의 안에, 생명의 참된 일치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결합되는 단일한 실재(實在)가 이루어지니, 이는 바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개선 교회, '연옥'에서 정화되는 단련 교회, 그리고 너희의 가련한 지상에서 아직 순례 중인 신전(神戰) 교회가 이루는 단일성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이 거룩한 일치를 보면서 나는 너희에게 언제나 영원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따라서 내게는 이곳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든지 아직 연옥에 있거나 지상에서 걷고 있는 자녀들이든지, 모든 자녀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 눈에는 여기 천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너희 형제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여전히 내 '운동'의 극히 소중한 구성원들로서 너희 곁에 있음이 보이는 것이다... 너희도 천국에 와 있는 이 형제 사제들이 너희 가까이 있음을 느껴야 한다. 영원히 내 '운동'에 속해 있으니 이들은 살아 활동하고 있는 일원으로, 내 명령에 따라 싸우는, 결국은 승리할 내 군대의 소중한 전투원들로 여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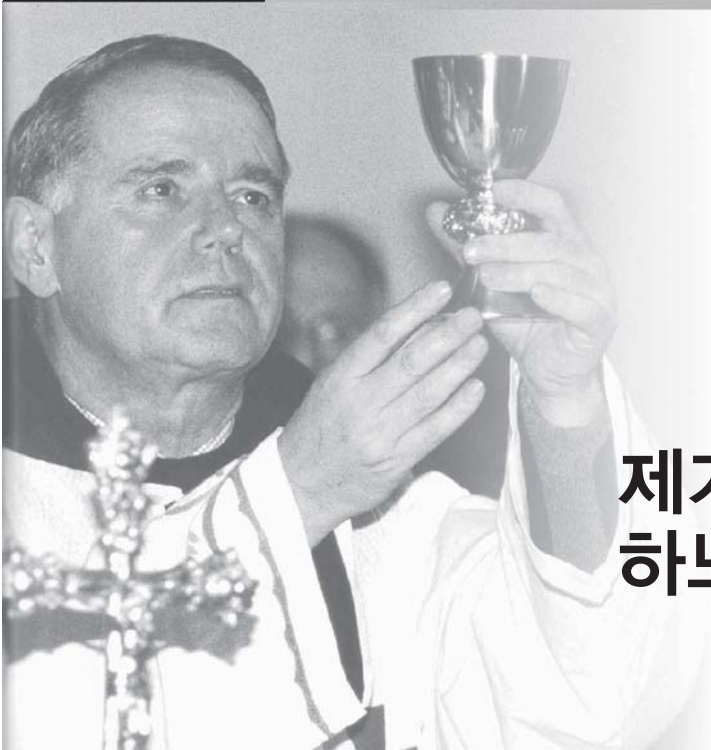
티없는 내 성심이 교회에 주는 선물이 이 '운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오로지 나의 사업일 따름이다. 지난 11년 동안 나는 세상 곳곳에서 이 운동을 펴 왔다. 나의 부름에 아들들이 응답하여, 그 11년 동안 티없는 내 성심의 승리를 위한 사랑과 자비의 걸작을 만들어 온 것이다. 내가 너

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교회도 '마리아 사제운동'이 참으로 '티없는 내 성심'의 선물임을 갈수록 깊이 깨닫게 될 터이다. 이 운동과 더불어 나의 항구적인 현존과 어머니로서의 보호라는 확증도 교회에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티없는 내 성심의 선물은 다른 무엇보다 새로운 '성령 강림'일 것이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첫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티없는 내 성심'의 다락방' --- 즉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다락방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인 너희가 천상 엄마와 함께, 성령께서 다시 내려오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은 불과 사랑의 능하신 역사로 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실 '사랑의 성령'이시리라.. 그분은 성덕과 빛의 크신 권능으로 내 교회에 새로운 광채를 주시어, 겸손하고 가난하며 복음적이고 순결하며 자비롭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사랑의 성령'이시리라..



'사랑의 성령'이신 그분은 또한 무수한 고통의 불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어, 예수께서 만방으로 광선을 내뿜는 빛의 '태양'같이 항상 그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정원, 곧 새로운 '지상 낙원'이 되게 하시리라. **M**

(이 메시지는 1973년부터 1997년까지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제가 믿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저자: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 이: 남기옥 마르타

질문 :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티할리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당에는 음향시설, 마을에는 전화가 설치되었고, 수도물도 공급되었습니다.

요조 신부 :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가끔씩 서로 다른 언어권의 순례자들이 올 때는 통역자를 기다려야 했고, 장례미사나 혼배미사가 있는 날이면 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순례자들은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웠던 것은 시설이 너무나 빈약해서 순례자들을 많이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질문 : 자원 봉사자들이 신부님을 많이 도와 드렸는지요?

요조 신부 : 네, 어떤 이들은 버스를 타고 와서 장애인을 돌보아 주고 순례자들을 위한 화장실 청소와 봉사를 했습니다.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순례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각 순례단의 지도 신부님들이 모국어로 미사를 봉헌하고 제가 강론을 하면, 각 나라 언어권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피정의 집을 건축할 때는, 강에서 물을 끌어들이어 아주 커다란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한 달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식수를 저장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것을 본 젊은이들과 부부들이 여름 내내 도와주었고, 어떤 이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와 거리에 버려져 있던 중독자들을 도와주던 수사님도 생각납니다.

질문 : 어떤 수사님이셨나요?

요조 신부 : 에프레 수사님은 커다란 빨간 십자가가 붙어 있는 수도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10 년 동안 그 수사님을 도와주고 있던 오르넬라 자매도 있었는데 두 분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던 그 젊은 자매는 순례자들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소성당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봉쇄 수녀원의 수녀로 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찾아오는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중요한 일과로서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질문 : 불라제비치 양카 자매를 아시는지요?

요조 신부 : 양카는 세르비아 사람이며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아틀라스 여행사 직원으로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마이애미에서 온 쿠바 순례자들의 안내자로 메주고리예를 왔었습니다. 무신론자로서 세속적인 지식과 꿈이 대단했던 그녀는 자그레브 대학 경제학과 학생일 때, 멕시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장래가 촉망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사상에 세뇌 되어서 신앙의 거룩함은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때도 성당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통역을 시키고, 본인은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강론을 듣고 기뻐했으나 통역이 맘에 들지 않아 결국, 이탈리아어를 하는 순례

그녀는 행복해 하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가 별도의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양카는 행복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탈리아, 독일, 미국인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순례자들과 함께 온 그녀에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도 크로아티아인도 아니고 당신이 믿는 신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순례자들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 뿐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온 순례자들이 강론을 알아듣지 못하니 자매님은 좋은 가이드가 아닌 것 같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2~3번 더 그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그녀가 내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집과 아집이 대단했던 그녀는 모든 것을 자기 식으로 알고 싶어했습니다. 교황성하와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교회는 어둠의 세기를 살고 있다." 는 등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그 자매의 수많은 질문에 서둘러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하느님과 예수님, 교회를 부정하도록 세뇌교육을 받은 결과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질문 : 양카는 세례를 받지 않았었군요?

요조 신부 : 네, 후에 양카 자매는 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

다. 그때 자매의 어머니와 가족들, 많은 사제들이 세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감동을 받아 무척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요조 신부님이 티토 동지를 (공산정권에 있던 유고슬라비아의 전 대통령) 생각나게 해서 그렇습니다. 꼭 티토 동지처럼 말씀하시네요." 아이구, 세상에! 저를 보면서 "티토 동지"가 생각나서 운다는 겁니다. (폭소를 터트리심!)

질문 : 그분에게 영웅인 티토와 신부님을 비교한 것이군요!
 요조 신부 : 네, 그 후 양카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제 강연을 통역하는데 모든 시간을 우선했습니다. 겨울 피정 때도 기쁜 마음으로 협력했고, 많은 도움을 주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주고리에에서 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안내자입니다.

질문 : 이탈리아어를 무척 유창하게 구사하시는데 어디에서 터득하셨습니까?

요조 신부 : 감옥에서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대학교 약학 교수였던 니콜라 노바코비치라는 교수님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7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탈리아어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교황성하를 만나려면 바티칸 공식언어인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교황성하를 알현했었다고 했죠. **M**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주례 : 신 경남 스테파노 신부

일시 : 4월 8일, 4월 22일 오후 7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로제 수사(떼제 공동체)

그리스도를 따르자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이란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하느님은 억지를 부리지 않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힘이 점점 사라지는 듯하다가도, 갑자기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님, 저를 당신께 내맡길 수 있게 해 주소서."라고 불현듯 그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한 길로 걸어가야지 한꺼번에 두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는 복됩니다. "주님은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한 치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 친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내적으로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면, 저는 당신을 찾으며 메마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이릅니다.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저의 열망과 목마름을 채워주소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 둡시다. 사도들과 성모 마리아, 초대 교회 신자들 때부터, 아주 단순 소박하게 살면서 나눔을 실천하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순

수한 기쁨 가운데 하나는, 늘 단순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은 소박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삶을 단순화하라는 말은 비판적인 태도로 가득 차 모질고 엄격하게 지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 소박한 삶이 그저 엄격함을 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뜻의 단순 소박함은 평온한 기쁨 속에, 또 경쾌한 마음 안에 가장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밀도있게 살기 위해 생활을 단순화할 때, 우리는 삶의 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느님과 친구를 이룰 때, 누리는 맛입니다. 삶을 단순화하고 남과 나눔을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분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길입니다. 생활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찾아올 때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탄과 신음만 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되찾으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단조로운 나날을 기쁘게 엮는데 그것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많이 가져야만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신앙과 적은 물질 밖에 나눌 것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을 나눌 때 하느님께서 그대 마음에 하염

삶을 단순화하고 남과 나눔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길입니다.

없이 넘치는 풍요함을 주십니다. 암흑과 회의가 몰아쳐 올 때, 왜 그런 것들을 멀리하지 않는가요? 많은 경우에 그것은 다만 일시적인 실망이나 좌절에 불과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메마른 땅으로 여깁니까? 아침이 눈물처럼 이슬 내리면, 그대 영혼의 사막에도 갈증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년 전 언젠가, 그 당시 '레닌그라드'라고 부르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초대되어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정교회 대성당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의 니코데모 주교는 그 젊은이들에게 몇 마디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닌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을 나는 나라 곳곳에서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뛰어난 인물로 알려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분과 친교를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전날, 주교님은 곧 정교회 사제로 서품 될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 할 수록, 우리는 더욱 복음 때문에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한 모순된 힘들 조차 받아들이시며, 우리를 걱정케 하는 그 모두를 '변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께 다가갈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 안에서 비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아름다운 빛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안의 일치를 함께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내적인 새 출발을 샘솟게 하는 용서와 화해를 당신에게서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언제나 새로이 주님을 선택할 힘을 어디에서 길어 오겠습니까?" **M**

간절한 기도 지향을 성모님께 전해 드립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하느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새롭게 만드소서...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작은 형제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2010년 2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연 또한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은총의 시기에, 창조주 하느님께서 너희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어, 너희를 그분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시도록 그분께 마음을 열라고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면 너희 마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이 영원을 향한 새 생명과 갈망으로 깨어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연 또한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은총의 시기에, 창조주 하느님께서 너희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어, 너희를 그분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시도록 그분께 마음을 열라고 너희를 부른다: 영어로 사순절을 'Lent'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사계절 가운데 하나인 '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면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위치한 사순절은 말뜻 그대로 우리 영혼의 '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혼의 '봄'을 준비할 수 있을

런지요? 성모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 하느님께 연다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하느님께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 하느님께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께 있기에,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어 주도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성모님의 말씀대로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 그리고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어둡고 일그러진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 하느님께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하느님 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 일그러진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하느님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애원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시편 51, 3-4, 11-12)

사순절 첫날인 재의 수요일, 사제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재를 얹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여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할 때,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어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면 너희 마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이 영원을 향한 새 생명과 갈망으로 깨어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다시 재의 수요일로 돌아가 보면, 사제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재를 얹으며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지만,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하신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다시 발견하는 때입니다. 성모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창조주 하느님께 열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 때의 그 선한 모습대로 다

시 되돌려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선한 모든 것들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사순절은 또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유한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당신 친구가 누군지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알려 주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그분과 참으로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느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또한 영원하신 하느님 곁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기를 갈망합니다.

창조주 하느님, 선하신 당신의 모습대로 저를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연 또한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은혜의 시기에, 당신께서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창조 때의 그 모습대로 저를 만들어 주시도록 당신께 제 마음을 활짝 열어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이 당신 손에 달려 있사오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새롭게 만드소서.

성모님, 당신은 창조주 하느님의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피조물이십니다. 늘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한 번도 죄에 당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당신을 닮아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느님께만 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예수님은 성모님의 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10년 3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너희가 힘차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힘을 내라고 너희 모두를 간절히 부른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희 소명을 기쁘고 겸손하게 살며 모든 이에게 증거 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모두를 내 아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다. 예수님께서서 너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너희를 떠받쳐주실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너희가 힘차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힘을 내라고 너희 모두를 간절히 부른다 : 무엇을 하든지 대충해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서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하느님을 사랑할 때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

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바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고,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티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 엎드려 자신을 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서는 감동하셨고, 그녀에게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은 나왔습니다.

(마태오 15, 21-28 참고) 외면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나안의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힘차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딸이 마귀에 들리는 시련을 겪으며 고통을 받았던 이 가나안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과 대화, 즉 기도를 이어갔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체험 이후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더 커졌을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힘차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참으로 힘차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비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위탁합니다. 기도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참된 삶과 영원한 세상에서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바치는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만들어줍니다. 구체적으로 그 양상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으셨지만,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떤 시련들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련을 당신의 것으로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성모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과 시련에 동참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련을 통해 많이 단련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위축시킵니다. 그렇기에 성모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을 겪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셨고, 갈바리아 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지켜 보시며 그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성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아들아, 힘을 내어라. 세상을 구원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겪고 있든지 성

모님은 그 시련을 아시고, 그 시련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희 소명을 기쁘고 겸손하게 살며 모든 이에게 증거하여라 :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당신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 15, 16참조) 우리를 당신의 제자, 당신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이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마르 16, 20 참고)

어떤 사람은 사제로, 어떤 사람은 수도자로, 평신도로, 우리가 받은 소명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명의 공통점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그 구원의 열매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니 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서 드러나시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세례자 요한의 말은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요한 3, 30)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모두를 내 아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너희를 떠맡겨주실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모든 어머니는 자녀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늘 그들과 함께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 아픔과 시련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들이고, 그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신 성

모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시련을 겪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성모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메추고리에서 계속 발현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회개와 성화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 15, 5 참조)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그분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4, 8 참조)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고, 그는 일어나 들것을 들고 걸어나갔습니다. (마르 2, 1-12 참조) 예수님은 당신에게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정성과 믿음으로 치유를 갈구했던 사람들의 청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도록 청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모님의 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 입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모두를 내 아들 예수님 앞으로 데려 간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너희를 떠받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 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떠받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통하여 저를 당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주시는 은총에 감사 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저의 말과 삶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당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신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직 당신의 이름에만 모든 희



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모님, 당신은 제가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시고,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당신의 마음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성모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제가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더욱 더 힘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시련과 고통, 슬픔과 아픔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M**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중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욱 (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이 토마스

편집위원: 최성득, 이금희, 이규현, 송시원, 한테레사, 남미자

인쇄: 동방인쇄, 영인문화 인쇄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메주고리예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표징입니다

오스트리아 전 교황대사 에드몬드 파라hat 대주교

오스트리아 전 교황대사였던 에드몬드 파라hat 대주교가 2009년 10월 26일 독일어권 신자들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순례했다. 현재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파라hat 대주교는 1933년 레바논의 아인 카파에서 출생, 1959년 마로니트 전례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 서품을 받았으며, 아랍권 라디오 바티칸 담당을 역임하였다. 1968년부터 교황청 신앙 교리성 위원직에 선출되었으며, 1989년 바빌로스 주교직을 맡고 교황청 외교를 담당하였다. 알제리아 바티칸 대표직에 이어 튀니시아 바티칸 대표를 역임했으며, 200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오스트리아 교황대사로 임명되었다.

남 마르타 : 특별히 평화의 모후 소식지 독자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주교님께서서는 한국 교회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지난 5월에는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드몬드 대주교 : 먼저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남 마르타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통해 한국 신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고 즐겁습니다. 한국 교회의 소식은 교황님의 정기 알현을 온 한국 주교님들께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1989년 세계 성체대회 때와 2009년 5월 인천 교구의 초대로 두 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발전과 생동감있는 사도직의 역동성,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주교님과 300여 명 젊은 사제들의 밝은 미소와 열정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길에서 세 번이나 넘어지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느님의 왕국을

메주고리에는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과 직접적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위해 투쟁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 방문 때 정진석 추기경님께 휴전선 근방에 성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휴전선을 방문했는데, 북한 형제들이 휴전선을 건넌을 때 가장 먼저 환영해 줄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배려로 생각됩니다.

남 마르타 : 대주교님, 메주고리에는 한국 교회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에드몬드 대주교 : 네, 메주고리예가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메주고리예는 현대 영성의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메주고리예를 찾아와서 거룩한 성사에 참여하고 기도합니다. 메주고리예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과의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살피 주신다는 표징입니다. 이곳에서 성모님의 첫 발현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에게 오랫동안 핍박 받는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군대를 동원한 강압적인 힘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힘없고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며, 그 힘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남 마르타 : 주교님 교구의 가톨릭 신자들과 교회의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에드몬드 대주교 : 레바논은 중동에서 작은 교회 공동체이지만 초대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가톨릭 신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은 더 이상 그리스도교 문화가 아니지만, 레바논 교회는 아랍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중동 지역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이 함께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화와 민족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가톨릭 문화를 전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원하는 사명에 응답해야 할지는 각자의 몫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와 은총의 교차 속에서도 중동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며 레바논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한 몸이고 같은 지체입니다. 작은 레바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 마르타 : 레바논에는 유명한 성인이 계시지요?

에드몬드 대주교 : 샤르벨 성인입니다. 위대한 설교가는 아니었지만 하느님 앞에서 작은 사람으로 겸손하게 살아온 그분의 삶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시편은 '하느님은 소란스럽지 않으시다.' 고 말합니다. 침묵을 사랑했던 샤르벨 성인은 기도하는 은수자로서 하느님의 뜻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샤르벨 성인의 겸손을 보시고 아랍 지역과 중동 지역을 밝혀주는 빛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하시어 신앙과 믿음의 빛을 밝혀 줌으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M**

(이 기사는 2009년 10월 27일 '평화의 모후' 소식지 독자들을 위해 남기옥 마르타 자매가 인터뷰한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메주고리예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계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레바논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죄의 고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무스 해거티 주교 / 아일랜드 데리 교구



습니다.

아일랜드 데리 교구의 시무스 해거티 주교님은 메주고리예 순례를 했던 많은 고위 성직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은 라프회 교구장이었던 1987년 7월 메주고리예를 방문했고 그 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의 현상들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들었고, 1987년 7월에 닷새동안 개인 순례자의 자격으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현지 본당신자들과 유럽 및 해외 각지에서 온 사람들 모두에게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바로 이곳 메주고리예가 기도와 보속과 화해의 중심에 있다는 인상을 아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열매로써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메주고리예 그 자체와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며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될 수 없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를 다녀온 저희 교구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과 가정 생활을 통해 보여준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엄청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의 원천과 의미를 저 스스로 찾아봐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발현목격증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들은 바는 그 메시지들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복음 사이에 강한 일치와, 유사성이었습니다. 기도, 단식, 화해와 평화- 이 주제들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매우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예의 메시지에 관해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주춧돌인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예 메시지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며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서 바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서 단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식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러나 근래들어 단식은 그리 많이 실천되지

우리는 메주고리에서 진정한 평화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열매가 전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요즘 단식이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극적인 방식으로 단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에서 진정한 평화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평화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메주고리에서 관찰하고, 그곳을 순례했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바에 따라, 저는 평화의 근원지이며 중심지인 메주고리의 열매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기도 모임들이 메주고리 순례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생겨났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그곳에서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메주고리 현상은 특히 무엇보다도 기도를 독려하는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메주고리를 다녀온 사람들은 본당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훌륭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깊은 인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주기도는 메주고리에서 실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인상받았던 것은 목주기도를 바치는 가운데 신비들의 성서적 차원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입장은 공식적인 교회 - 이러한 발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교들과 신부들이 이러한 기도모임을

을 장려해야 하고, 그 모임들에 참석해서 모임을 이끌어주고 조언과 영적 훈화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지향과 신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성직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도움과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제가 기도모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확대해석이나 비현실적인 오류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제가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만약 메주고리의 중심 메시지인 기도, 단식, 화해와 평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려지게 되거나 기적과 경이로운 일들만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교회의 이 기도 모임들에 사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은 아주 장려할만한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메주고리에서의 가장 특별한 체험은 고해성사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 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주었는데, 저는 이 세 시간 동안 지난 21년간의 제 사제생활 동안보다 더 진솔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죄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뚜렷한 은총의 역사하심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보속과 화해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받아 들이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체험은 제가 가장 인상적이고 메주고리에 추억과 함께 하는 기억으로 언제나 남게 될 것입니다. **M**

믿지않는 이들을 위해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영혼이 사랑하면, 내 아드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니 사랑의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하여라. 내 아드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을 따라 살기 원하는 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도록 기도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사도가 되고, 내 사랑의 강물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너희가 필요하다. 고맙다."

2010년 3월 18일



발현 목격자가 본 천국과 연옥과 지옥

발현 목격자 비츠카(4)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질문 : 비츠카, 당신 자신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을 보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비츠카 : 네, 성모님께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의 장소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그저 지상에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질문 :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까?

비츠카 : 네, 성모님께서 야콥과 저를 지옥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천국은 매우 광활한 곳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빛이 있는 그곳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희는 회색과 분홍, 노란색의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걷고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들 위에서 작은 천사들이 날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저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들의 얼굴을 본다면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목격한 그 엄청난 행복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믿음

을 지킨 이들에게는 커다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천국에서 보았을 뿐입니다. 천국에서는 성모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했고, 그분도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 천국의 사람들이 분홍과 노랑, 회색의 긴 옷을 입고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거닐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츠카 :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있다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피조물이 느낄 수 있는 절대적인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그곳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습니까?

비츠카 : 그게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무리 속에 서 있었고, 저는 야콥과 성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지옥은 어떠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갑니까?

믿음을 지킨 이들이 받는 상급을 천국에서 보았습니다.

비츠카 : 네, 우리는 지옥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 그곳으로 올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지옥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생명과 해와 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그들을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분을 부인하고 죽은 후에도 그분을 계속 부인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며 살아 온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이 본 지옥을 말해 주시겠어요?

비츠카 : 지옥 한가운데는 이글거리는 화염 바다처럼 보이는 거대한 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의 그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그들은 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 후 그들이 불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에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해괴한 동물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들의 모습은 흉측하고 혐악했습니다. 서로의 모습이 달라서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불 속에서 나온 후, 그들은 괴상한 고통을 지르며 주위의 모든 것을 부숴 버렸습니다. 증오심으로 이를 갈고 욕을 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질문 :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웠습니까?

비츠카 : 성모님과 함께 있을 때, 결코 두렵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당신은 지옥 불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까?



비츠카 : 아니오, 저희는 성모님과 함께 특별한 은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질문 : 비츠카, 당신은 하느님께서서는 누구도 단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스스로 지옥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천국 또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비츠카 :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곳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천국에 갈지 연옥에 갈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 :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비츠카 : 네, 하느님의 뜻을 믿고 따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충실하게 응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질문 : 지옥을 본 것이 당신의 기도 생활에 변화를 주었습니까?

비츠카 : 물론입니다! 저는 지금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M**

이 기사는 6명의 메주고리에 발현목격증인 체험담인 『우주의 여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정희 아델라

묵주를 이용해서 바치는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계시고 이 기도를 바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알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이 기도의 효과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는 모두 알고 계시듯이 폴란드 자비의 성모 수녀원의 마리아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할 때에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할 것이다. 마음이 완고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만 바치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로 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게 되기를 갈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느님 자비 축일 새벽에 하느님 앞에 완전히 흰 옷으로 갈아입은 꿈을 꾸 후에 일생 일대 가장 큰 평화를 체험했고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며 약속을 실천해 주신다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는 늘 은총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어떤 사람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세를 보이



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루카 복음 15장 11~32절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처럼 말입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의탁해도 그토록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총과 축복을 주시려는 하느님을 슬프시게 하고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억누르게 만드는 것은 항상 인간인 것입니다. 하느님 자비축일에 커다란 마음의 평화를 체험한 이후에 공기없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진리만큼이나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늘 곁에서 아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의로운 분노, 즉 의노를 누구려뜨릴 가장 강력한 수단은 예수님의 수난입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랑으로 지어 내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모독하고 창조했을 당시의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모욕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인 한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부터 마땅히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했던 모든

당신 아드님의 그 쓰라린 수난을 떠올리며 당신 아드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게 됩니다.

영광과 찬미와 감사와 보속을 온전히 하느님께로 되돌려 드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어 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극히 짧은 순간에 창조적인 말씀 한 마디로 구속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안에 숨은 채 스스로를 낮추어 인생행로의 과정을 거치며 장기간에 걸쳐 숭한 고생과 고통을 겪으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에 대해 각 사람을 대신하여 하느님을 흠송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보속과 영광을 드렸으며 각 사람 대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고난을 받으시며 기도를 바치셨던 것입니다.



한 하신 사랑과 자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풀고 당신 자비의 깊은 심연이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비의 샘에

서 그들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은총들 뿐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 필요한 은총도 얻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감미로운 예수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임종할때, 나는 그 영혼들이 마치 나 자신의 영광인 양 보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은혜를 베푼다. 임종하는 사람곁에서 이 기도를 바칠 때에 내 자비의 깊은 심연은 내 아들의 슬픈 수난때문에 감동되어 하느님의 분노는 사그라지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자비가 그 영혼을 감싸게 된다."

하느님 자비의 기도의 구절에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에서 '온 세상'은 살아 있는 사람과 연옥 영혼까지 일컫는 말이고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며 참아 받으신 당신 아드님의 그 쓰라린 수난을 떠올리며 하느님의 분노가 자비로 바뀌면서 당신 아드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정의가 느껴질 때는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우리는 피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예수님의 수난을 상기 시켜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바치면서 간구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으니 아들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알려 주신 이 기도를 예수님의 원의대로 잘 활용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는 한, 청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리아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살펴보면 극심한 가뭄에 비를 내려 주시기도 하고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중요성은 하느님의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무

을 4월에 언니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죽음과 같은 슬픔에 빠졌고 이 죽음에서 저를 건져 준 것은 순전히 하느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이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였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슬픔이란 언니의 죽음 자체보다도 가톨릭의 풍성한 은사를 누리지 못하고 언니를 떠나 보낸데 대한 걱정과 불안같은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개신교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차원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었고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면 정의의 심판자가 아닌 자비의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와 죽어가는 사람사이에 설 것이라는 말씀에 희망을 걸고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온 정신으로 매달렸습니다.

임종이 시작되자 이 기도는 내 안과 밖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것 이상 더 큰 은총은 없을 것입니다.

이어졌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어느 한 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연민이 가득하신 눈동자와 함께 예수님의 군단이 내려 오는 듯한 환영이 스치면서 편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영감일 뿐입니다. 그 이후 얼마 안 있어 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장례식 내내 잠도 거의 자지 않고 물도 거의 안마시며 왜냐면 하느님을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은 저 밖에 없었고 기도만 하는 내게 불교 신자와 비신자들인 친정 가족은 편잔점 위로점 식사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어떤 내적 확신을 가지고 거의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고 내 마음은 끊임없는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제 뺨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느님께서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신가! 어쩌면 그토록 약속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등입니다.

'나의 자비를 부르는 영혼들 중에는 실망을 당하거나 무안을 당할 이가 아무도 없다고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졌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는 1년 내내 생활 속에서 늘 바쳐져야 하는 기도입니다. 목주를 이용해서 바치도록 알려 주신것도 자주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짧고 쉬운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것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루중 모든 기도에 앞서 가장 먼저 바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태초부터 함께하여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찬미를 드리고 저희와 늘 함께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것 이상 더 큰 은총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적중에 가장 큰 기적인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와 가족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는 임종자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면 나의 관대함도 한이 없을 것이다.' 하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우리 모두 의탁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 파우스티나 성녀께 가르쳐준



9일 기도 9가지 지향중 일곱째 날에 바치는 예수님의 지향과 그에 대한 성녀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나의 자비에 잠기게 하여라. 그들은 나의 수난을 대단히 애통해하며 나의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 왔다. 그들은 나의 동정심 많은 성심의 모상들이다. 그들은 저 세상에서 특별한 빛으로 밝게 빛날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지옥불에 가지 않을 것이고 나는 특별히 그들 각자를 죽을 때 에 보호하겠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성심은 사랑 자체가 시니 주님 자비의 위대성을 공경하고 특별히 들어 높이는 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의 거처안에 받아 주소서. 그들이야말로 바로 주님 친히 발휘하시는 능력으로 힘있는 자들이니이다. 온갖 고난과 반대 세력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여 전진함으로써 주님과 일치하였나이다. 오, 예수님, 그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온 인류를 짊어졌으며 그들은 엄하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님의 자비가 그들을 자애롭게 감싸 주실 것이니이다.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더없이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헤아릴수 없는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지극히 동정심 많은 성심 안에 감싸여 있는 영혼들 위에 아버지의 자비의 눈길을 보내주소서. 그들은 살아 있는 복음입니다. 그들의 손은 자비의 행위로 가득차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기쁨에 넘쳐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자비의 찬가를 노래하나이다.

오, 하느님, 간청하오니, 주님께 의탁하는 그들의 희망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자비를 보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뿐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자비를 공경하는 영혼들을 예수님 친히 당신 영광처럼 보호해 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 **M**

하느님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마이클 신부의 메주고리에 체험담

최근에 미국의 노틀담 대학에서 온 한 그룹의 학생들이 봄방학을 이용하여 메주고리예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캐나다에서 온 마이클 신부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마이클 신부님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이클 신부님은 자신의 체험담과 특별한 메시지를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신부님은 26세 때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6개월 후 아주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신부님은 자신이 빛으로 된 터널 아래에 있음을 느꼈고, 그것은 천국의 입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신부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과 완전함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예정이었던 신부님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신부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시 현세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하느님은 참으로 살아 계시며, 단 한 순간도 그분 외에 다른 그 어느 것에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강한 원의를 품고 현세로 돌아온 순간 그분은 병원에서 자신의 의식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마이클 신부님은 차츰 건강을 회복했지만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부님은 공허함과 허탈감에 속에서 천국을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자가 신부

님을 메주고리예로 초대했습니다. 신부님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의상 시간이 되는지 일정을 체크해보았는데 마침 시간이 있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쁠 거야 없지. 유럽으로의 공짜 여행인데 말이야!' 그런데 신부님은 삶의 목적을 메주고리예에서 찾았습니다. 마이클 신부님은 성모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신부님은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조 신부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한 자신의 체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그 체험을 말하지 않았던 신부님은 정말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요조 신부님의 강의를 끝난 후, 마이클 신부님의 일행은 요조 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이클 신부님은 너무 꺼려하셨지만, 요조 신부님은 미사를 집전하실 수 없었고, 대신 마이클 신부님께 일행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신부님은 자기의 체험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미사를 드려줄 다른 신부님을 구하느라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물론, 성모님께서서는 계획한 바가 있으셨고, 마이클 신부님은 자신의 체험에 대해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체험을 아주 강력한 증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마이클 신부님은 15번이나 메주고리에 순례를 했고,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체험담을 나누었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십시오.

습니다. 마이크 신부님은 뭔가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불같은 열망이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온다며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젊고, 인생과 직업의 출발점에 서있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나면, 하느님께 내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겠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나는 하느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대학원을 마치게 되면, 나는 하느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단 1초라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더 살게 될 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제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저는 그리 열성적인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죽었다면, 제 삶은 그저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는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만이 중요합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위해 살고, 하느님을 찾으며,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십시오. 내일이 있을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시간은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꼭 3일 후인 3월 18일, 학생들은 마리아를 위한 성모님의 연간 발현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엄마로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나에게 봉헌하여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속하도록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분이 너희의 시작이고 마침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이 깨달음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너희의 어머니로서 나는 너희를 위해 이를 간절히 원한다." 와!,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십시오. 온전히 그분께 속하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오직 이런 깨달음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례자들에게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성모님께서 3월 25일 마리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 노틀담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고 나는 너희를 부른다. 그분께 너희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기쁨, 슬픔 그리고 질병도 그분께 드러라. 이 때가 너희를 위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빈다. 어린 자녀들아,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 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와 같은 부르심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느님을 찾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으며,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열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의 부르심과 마이크 신부님의 경고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매순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거룩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주고리에서는 하느님을 우리 삶의 첫자리에 둘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총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메간은 처음으로 메주고리에 순례를 했으며, 다른 이들과 힘을 모아 젊은이들이 메주고리에 가도록 격려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메주고리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곳은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해 자신을 열듯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똑같은 기쁨을 간직하고 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M**

〈www.childrenofmedjugorje.com에서 발췌〉





죽은 하느님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으로



양카 블라제비츠

1988년 7월 21일 요조 신부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체험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성사를 집전했다. 공산당 간부의 딸이었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심의 체험담을 말했다.

"제 이름은 양카 블라제비츠이며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서른 살이고 자가브리아 경제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영어를, 쿠바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했습니다. 공산당원이었던 부모님들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산당원으로 성장한 저는 메주고리에 오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984년 11월 하느님께서는 저를 메주고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느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 그동안 제가 믿어 왔던 것들이 전부 바뀌었지만, 제가 살고 있던 사회에는 이 진실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발현산에 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거룩하신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후 수도원 입회도 생각 했었지만, 저의 사명은 메주고리를 찾아 오는 사람들을 성모님께 안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요조 신부님의 강론을 통역할 때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어느날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쿠바계의 순례자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훌륭한 가톨릭 신자로 믿고 신뢰해주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굳이 제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웬지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메주고리에서 만난 페타르 신부님 앞에서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세례를 받고

싶은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빨리 '예'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로지 그분의 딸로서 성모님 옆에 가까이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무신론자들에게 배운 모든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은 많은 질문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메주고리에서 신부님들과 주민들에게 받은 것은 오직 사랑, 사랑뿐이었습니다! 신부님, 지금 제 마음 안에는 메주고리에 머물며 가톨릭 교회의 일부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조 신부님은 저에게 많은 은총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처음으로 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 주셨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성당 안에 들어 갈 수 있었고, 처음으로 묵주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례자들을 메주고리로 안내하는 것이 성모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성모님을 생각할 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매우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가정은 자녀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은 부모들의 기도와 믿음이 담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부모들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맡기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후 공산당원이었던 우리 가족들도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우리 집과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십자가와 고통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찬란한 빛 속에 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십자가 산을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가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쁨과 힘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단식과 기도로써 성모님의 메시지를 믿고 실천한다면 모든 문제들의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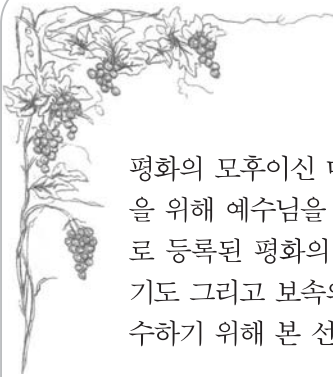
저는 메주고리예에서 요조 신부님께 세례를 받았고, 목격증인 비츠카가 제 대모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동안 제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늘 부끄러웠고 가장 무거운 짐이었으나 지금은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성모님이 유고슬라비아를 선택하신 것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정말 성모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대단히 훌륭한 사회주의 이념인 사랑, 우정, 정의와 자유를 기본을 기초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욕심과 야심때문에 힘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신앙을 떼어 놓는 것이 영혼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죄로서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메주고리예에 오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말씀뿐임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더 굳은 신앙과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 오래 머무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깁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했을 때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처음으로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동안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메주고리예 성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성체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찬란한 빛 속에 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모든 사람들은 성체를 모시기 위해 제대 앞으로 나가는데 왜 나는 저 앞으로 나아 갈 수 없는가?..." 지금도 성체를 모실

때면 그 고통이 저에게 가르쳐 준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메주고리예에 오십시오! 그러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한 번이라도 갔다오면 회개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직접 이곳에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느님과 예수님, 성령과 성모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제들이 메주고리예에 온 것이 그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저는 언제나 메주고리예에 대해서 말하고 글을 쓸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메주고리예를 전하겠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난 일들과 체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30년은 하느님 없이 살아왔지만 앞으로 하느님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될 것입니다. 메주고리예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일은 그분의 현존하심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제 마음의 숨겨진 장소에 모셔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메주고리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곳에서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비밀로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더 이상 비밀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이제는 제가 만난 하느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하느님의 딸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M**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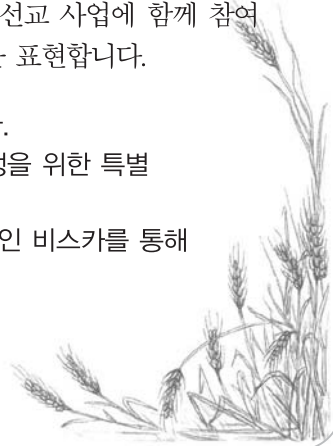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와 매달 메시지 목상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가족과 친지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성모님의 메시지와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성주, 강영애, 강찬구, 고마리아, 고민자, 광복화, 구민성, 권금옥, 김건일, 김기혜, 김마데라, 김만춘, 김명숙, 김사라, 김세록, 김소영, 김수도, 김시순, 김영서, 김영숙, 김영애, 김영희, 김윤순, 김율리안나, 김신디아, 김은현, 김정자, 김젠마, 김혜경, 김혜숙, 김혜정, 김희숙, 남순자, 노마리아, 도미틸라, 류기열, 마헬렌, 민헤레나, 박난정, 박마르타, 박명희, 박병철, 박상규, 박선미, 박숙진, 박승철, 박영순, 박정자, 박청희, 박혜선, 박혜영, 박캐더린, 백낙현, 서영희, 서애자, 서정열, 서종숙, 성철상, 손금덕, 손마리아, 송수자, 송은희, 신순덕, 심세실리아, 심크레센시아, 안영순, 안정희, 안혜련, 애자, 양은애, 엄봉화, 엄정애, 엄토마스, 오글로리아, 오성애, 원명희, 우동춘, 유규희, 유보영, 유정순, 유혜영, 윤로사리아, 윤경이, 윤경희, 윤영이, 윤정애, 율리안나, 이동우, 이말희, 이명진, 이선주, 이선화, 이송자, 이순세, 이순자, 이은경, 이은숙, 이옥범, 이요셉, 이요안나, 이영희, 이은희, 이재현, 이진민, 임선미, 임은경, 임효경, 장레지나, 장숙영, 장한순, 전진숙, 정윤도, 정금희, 정명좌, 정재희, 조세한, 조안나, 조정희, 주정숙, 주태형, 지니김, 지모니카, 진도미니카, 지현남, 차수미, 최경순, 최기호, 최미카엘라, 최덕희, 최도경, 최동숙, 최루시아, 최상환, 최에스터, 최연화, 천정순, 추호숙, 탁복순, 표상순, 한순희, 한영옥, 황계자, 황광순, 황정애, 허글라라, 허테레사, 호문숙, 흥테레사, 흥루시아, 흥복희, 흥옥선, 익명

Kim Valentina , Tak Lee, Cho Eileen, Heary Yerger, Insuk Mullins, Han Kyung, Yonsok Johns, Song, S. Lee Yoon, Kang Mee, Roy Jones, Theresa Wilinski, Kim Joo, Lee Mary, Kwon Soon, Lee Eun, Lisa Rigoni, . Shin Yoon, Lee Young Boon , K. Larcenaire, Kang Jae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 주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 이번호 소식지의 발행을 위하여 부족금을 차용했습니다. "평화의 모후" 지의 지속적 발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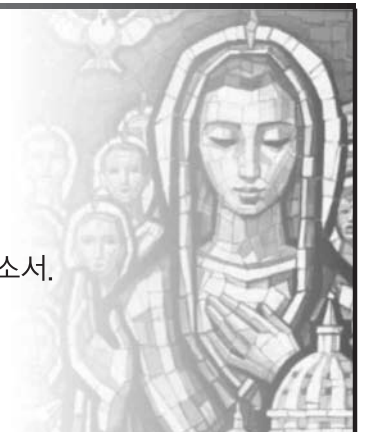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일반 후원금	\$7,510.00
지난호 부족금(익명)	\$4,000.00
총 후원금 :	<u>\$11,510.00</u>
지출	
지난호 이월금	- \$6,443.68
53호 평화의 모후 소식지	
반송봉투, 통신비, 교통비,	
발송비, 사무실 운영비	\$15,389.33
총지출액	<u>\$21,833.01</u>
54호 부족금	-\$10,323.01
차용금	\$10,323.01



평화의 모후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성모님,
 저의 기도를 받으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소서.
 그리하여 모든 인류를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끄소서.
 제가 당신을 도와 인류 구원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초대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파리, 루르드, 로마, 아씨시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0년 성지순례 안내

2010년 5월 15일 - 27일 (12박 13일)

메주고리에-드브로브닉-파리-기적의 메달성당-외방선교회-루르드

2010년 7월 26일 - 8월 8일 (13박 14일)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 대회 - 드브로브닉 - 로마 - 바티칸 - 성바오로 치명터 - 카타콤바 - 성모 마리아 대성당 - 아씨시 - 란치아노 (성체 성혈의 기적의 성당)

문의처 :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

PRSR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